

「인구지정학」의 이론 구축 연구

요인검증 결과

JONATHAN WEBB (게이오대학)

1. 연구의 소개

1.1 들어가며

오늘은 새로운 국제 관계의 이론 ‘Geopolitical Demography’(일본어명:인구 지정학)의 구축을 위한 연구와 그 연구 과제를 밝히기 위한 사례 연구 및 요인 연구를 소개합니다.

우선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2 연구의 의의

국제관계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구 규모가 국력(통칭 파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제 시스템 속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인구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계의 분야에서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0 년경부터 개발도상국의 젊은 인구 급증, 선진국 및 일부 중소득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전 세계적인 이민과 난민 문제 등이 발생하며 인구 동태의 변화가 21 세기를 크게 형성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습니다. 국제관계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문제와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인구 동태 요인을 포함한 지정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인 ‘인구 지정학’의 구축입니다. 인구 동태 요인과 힘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21 세기의 국제관계 분석, 예측에 대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선행연구

앞서 본 주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연구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발언을 한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대의 인구 통계학은 말 그대로 인구 통계, 즉 규모, 성장률, 출산율, 사망률, 이주율, 결혼율, 건강 상태, 평균 수명 등의 조사 및 처리,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단, 일차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통계의 객관적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 과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구축이 압도적으로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의 가장 저명한 이론이자 인구 전환 이론 가설인 ‘경제 발전에 따라 사망률 감소, 그 후 출산율도 서서히 대체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 및 실제 정책에 폭넓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외는 거기까지 논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론 구축을 추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연구에 인구 통계학이나 인구 동태적 요인을 넣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의 기원은 인구 동태 통계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변동이 어떻게 정치 경제를 영향을 미치는지 였으나 현재는 통계 처리가 중심인 상황입니다.

인구통계학의 학문적인 설립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 프랑스 인구통계학자들이었는데 그들 및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자국의 인구 성장 둔화를 개탄하며 독일에 비해 국력이 저하된 것을 인구 동향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통계학의 학문화에 따라 정치적인 색채는 배제되었습니다. 그 후 정치적 학문에서 인구동태 요인 분석이 적어졌지만 1971년 ‘Political demography(정치인구학)’이라는 새로운 분석 영역이 정의됨에 따라 정치와 인구동태와의 관련성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Political Demography’는 인구 규모, 구성, 분포 등이 정부와 정치 양쪽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인구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변화, 국가 내 정치 영향력의 분포 및 국가 간 국력의 분포입니다. ‘Political Demography’는 1970년대에 정의되었으나 2000년대 인구 문제 의식 개선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아 왔습니다. 2000년 이후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2001년 ‘Demography and National Security’ 및 2012년 ‘Political Demography: How Population Changes Are Reshaping Inter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Politics’이며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치와 인구 동태 관계가 기술적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단,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이나 난민, 민족분쟁 등의 국제적 영향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많고, 그 이외의 현상(저출산 고령화 등)의 주제가 비교적 적습니다. 또한 모두 기술적인 것에 해당하며 인구동태요인을 논리적 틀에 편입시키려는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나타난 영향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 「Geopolitical Demography」의 이론 구축 리서치 퀘스천과 가설

앞서 설명한 선행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인구 동태 요인과 지정학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의 리서치 퀘스천 및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합니다.

① 인구동태요인이 어떤 식으로 국제관계와 국가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가

(가) 인구 규모가 국제관계 상 국가 간의 상위나 국가 안전 보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가설: 국가의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클수록 그 나라의 국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많은 인구는 타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억제력 혹은 방어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규모와 국력의 사이에는 중개 요소들이 많아 인구 규모의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그 중개적 요인에 대한 파악 및 분석도 필요합니다.

(나) 서로 다른 인구 성장률이 국제관계의 상위나 국가안전 보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가설: 각국의 서로 다른 인구 성장률이 국가 간의 상위 국력의 장기적 변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구 규모와 마찬가지로, 인구 성장률과 국력의 사이에 중개 요소들이 많아 그러한 요소들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① 인구 규모 및 성장률과 국력 구축, 유지 간 어떤 중개적 요인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가설: 인구 동태적으로 국력 분석에서 중개적 요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어느 것이 결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② 외부나 내부적 요인에 따른 국가의 상대적 인구 규모 및 인구 성장률 정체, 저하(저출산 고령화 등)이 국가안전 보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혹은 예측 가능한가

(가) 가설: 다른 중개적 요소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인구 규모나 성장률이 비교적 둔화 혹은 지지부진하다면 장기적인 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과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의 상위에서 단기적인 상황 개선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인구 지정학’ 모델케이스와 그 과제

2.1 ‘인구 지정학’ 모델케이스 소개

연구의 출발선으로는 우선 뚜렷한 인과 관계를 볼 수 있는 인구 지정학적 모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후 모델케이스 분석 한계와 새로운 연구적 대처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델케이스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 사례를 다룹니다. 이 경쟁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촉발시켰고 국제 관계에 전례 없이 큰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그림이나 표와 같이 인구 규모, GDP, 전쟁 추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19세기 중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양국의 인구 증가율, GDP 성장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 그림 1과 2, 혹은 표 1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인구와 GDP 그림은 놀랄 정도로 많이 닮아 있으며 1870년에 국토를 새롭게 통일한 독일이 비교적 인구증가가 둔화된 프랑스의 인구수를 따라잡아 그 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인구가 우위에 있는 국가는 GDP나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프랑스는 독일과의 군사 교전에서 패전을 반복했고 유럽대륙 내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이 모델케이스를 검증하며 다다른 결론은 명확하며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소, 특히 사회, 산업, 정치형태, 자연환경 등의 발전이 동일 혹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인구 증가는 더 큰 경제규모를 가져다 주고 일반적으로는 더 큰 국력을 가져다 줍니다.

2.2 ‘인구 지정학’의 논리 구축을 위한 중개변수의 필요성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상황의 유사성이나 수습 수준은 매우 드문 편이며 서로 다른 국가나 시간대를 비교할 때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국력의 구축과 투영에서 비교적 큰 인구가 매우 중요한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증가가 오히려 발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즉 프랑스와 독일처럼 비교 대상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인구 동태의 변화와 국력의 변동이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게 되지만 비교대상국이 서로 다르면 다를 수록 그 관련성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요컨대 중개 요소가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또 모델 케이스의 사례를 보아도 중개 변수 이외에도 한가지 중대한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론의 리얼리즘(현실주의)의 많은 연구에서는 국력(파워)라는 집약된 개념을 종속 변수로 취급합니다. 이는 나라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힘을 의미하며 외교상의 영향력 혹은 군사력, 경제 규모 등 폭넓은 범위 및 의미가 내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의나 어떠한 측정법이 존재하는 게 아닌 다양한 정의나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문제라 할 것도 없이 국제관계의 많은 연구에서는 GDP(국민 총생산)과 전쟁 결과 등을 국력 평가를 대신해 다루며 그렇게만 해도 가설에 대한 충분한 인과 관계를 증명할 근거로 작용됩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구 동태는 복잡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집계하지 않은 분석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설처럼 본 연구의 중대한 과제는 적절한 변수의 설정과 검증입니다.

2. 변수 연구와 케이스 스터디

3.1 새로운 중개변수 제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중개변수가 본 연구의 발전에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중인 중개변수 중 하나는 ‘지정적 한계지’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는 경제학이나 발전학에서 다루는 ‘경작 한계지’의 개념을 고안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경작 한계지’란 ‘그 토지를 취득하고 경작하는 비용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거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농업적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 정의를 연구해 ‘지정적 한계지’란 ‘국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높이지만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은 지역’을 지칭합니다. 사정 기준은 시민이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3.2 케이스 스터디

중개 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를 케이스 스터디로서 검증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약 30 년간 러시아는 인구 규모의 정체와 축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다는 사망률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최근 다른 강대국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는 국가나 앞으로 그렇게 될 국가의 국력 행방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보입니다.

발표의 결론

오늘 발표에서는 새로운 국제 관계 이론 ‘Geopolitical Demography’, ‘인구 지정학’의 구축 연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다시 정비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발표한 내용을 앞으로 구체화하고 논문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하며 박사 논문으로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역책임자 : 박소윤)